

# 이제는 세계화시대, 변화만이 살길이다!

-개방시대를 대비한 인삼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下)-



박계홍 박사 · 대전대학교 경영학전공 교수

- I. 서론
- II. 우리나라 인삼산업 현황
- III. 인삼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1
- IV. 결론

### (5) 인삼유통의 혁신

포전매매와 중간상의 유통질서 문란의 개선, 인삼류 검사의 개선으로 품질확보, 물류센터를 통한 계통출하로 생산안정의 도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를 다양하게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마케팅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낙후된 인삼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정책당국이 인삼의 주산지인 금산에 '인삼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인삼공판장을 설치하여 인삼분야(수삼)에도 '품질인증제'와 표준거래규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협의 계통판매망을 확충하고, '전장상거래'를 활성화하여 인삼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현대적 물류센터에 의한 계통출하가 없어 합리적인 규격설

정과 비합리적인 유통관행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공동출하, 선별, 포장, 저장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매·비축사업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6) 인삼관련 연구기관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노력

인삼관리기능의 통합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로 다원화되어 있는 기능의 일원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다원화·분산화되어 있는 인삼관련 연구기관에 대해 전문분야별 연구기능을 조정해 농촌진흥청은 재배와 생산기술, 인삼연초 연구원은 인삼제품의 개발과 마케팅

팅 중심의 연구기능, 농업기술센터 인력은 인삼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농촌현장의 기술지도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한 세계 시장 접근**

과도기적 상태를 조기에 극복하고 고려인삼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내 수요 확충과 세계 일류 수출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할분담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 생산기술의 개발과 인삼산지 '개발: 농촌진흥청, 인삼연초연구원
- 국내마케팅: 인삼공사, 농협, 삼협
- 해외마케팅: 인삼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코트라
- 인삼소비문화 혁신: 관련조합
- 인삼정보화: 통합네트워크 운영(웹사이트의 강화, 인터넷과 인터넷의 강화)

**4. 결론**

농산물의 소비와 생산은 그 나라의 기후조건, 의식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세계진출은 그 나라의 문화여건을 고려하여 제품 차별화와 시장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산물은 주식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와 기호식품과 건강보조식품등

으로 대별된다.

우리나라는 쌀 세계 3위의 생산국이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는 나라가 북한을 제외하고는 쌀이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어 수출과는 거리가 멀고 내수시장을 방어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나 인삼은 생육기간이 길고, 기후와 토양조건에 의해서 생산량 변동이 매우 높아 농산물 중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이 가장 큰 작물이기 는 하지만, 고려인삼의 성가가 현재 상태로는 보존되어 있어 그런 대로 고급제품군으로 차별화되어 있어, 내수기반을 확보하고 차별된 제품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한다면 인삼의 세계화는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내부여건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원가우위전략으로서 동일한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 둘째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국보다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소요된 원가 이상의 가격프리미엄을 받는 전략, 셋째 집중화 전략으로 세계 인삼시장을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인삼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인삼의 수매와 비축,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중간단계의 마진

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위주의 물류체제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은 힘겹고 어려운 일이나 외부의 여건이 변화해도 적응력을 높여 주는 생존전략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 인삼산업이 농림부로 이관되고 인삼협동조합이 농협과 통합되어 제도적인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다.

인삼산업 종사자들이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돕고 격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첫째, 수출확대를 위하여 안정적인 고품질 원료삼의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생산기술의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과 소득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공산업 활성화와 인삼소비계층의 자변화대가 필요하다.

넷째, 인삼물류센터, 인삼공판장 개설, 표준거래규격 제정, 전자상거래 활성화,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한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질서의 확립이 중요하다.

다섯째, 인삼을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다양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생산기술과 제품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